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2. 5.(화) 11:00,
(지면) 2023. 12. 6.(수) 조간

배포 2023. 12. 5.(화) 06:00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녹색해운 및 블루카본 관련 국제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 11. 30.~12. 12.)’에 참여하여 녹색해운*과 블루카본**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녹색해운: 저·무탄소 연료 전환을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

** 블루카본(Blue Carbon): 해양생태계에 흡수되어 저장된 탄소로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탄소흡수원으로 부각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채택에 따라 녹색해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블루카본 또한 전 지구에서 배출되는 탄소 중 약 23%를 흡수해 기후변화 극복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에 녹색해운과 블루카본과 관련하여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번 제28차 당사국총회(COP 28)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홍보관에서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제연합(UN)의 지원으로 1948년 국가·정부기관·NGO의 연합체 형태로 창설된 국제 환경단체

먼저, 현지시간으로 12월 6일(수) 오전에 한국홍보관에서 국제해운 탈탄소화 정책을 주제로 해양수산부, 미국 국무부, 탈탄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비롯하여 한-미 녹색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연구·진행상황 등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와 미국 항만 간 친환경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항만하역 포함)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한-미 간 공식 협력 발표

이후에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미국 국무부 측과 공유하고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한국홍보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블루카본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잠재된 가치를 공유하고, 블루카본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피터톰슨(Peter Thomson) 유엔 해양 특사와 인도네시아 블루카본 연구진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 식물이 자라지 않으나 탄소흡수능력을 보유한 갯벌로서 국내 갯벌의 약 98%를 차지

특히, 비식생갯벌의 경우, 앞선 12월 4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홍보관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하 IPCC)의 온실가스 작성 지침에 ‘비식생갯벌’을 반영하기 위한 국제협력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비식생갯벌은 IPCC로부터 아직 신규 블루카본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과 연계하여 국내 갯벌의 약 98%를 차지하는 비식생갯벌의 IPCC 국제인증 받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비식생갯벌이 연간 최대 49만 톤의 탄소(자동차 20만 대의 배출량)를 흡수한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탄소흡수원 분야에서 높은 위상을 가진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과의 특별보고서 공동 발간도 공식화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부대 행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탈탄소화 정책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블루카본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양수산부가 기후위기의 핵심 방안인 녹색해운과 블루카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행록 (044-200-5280)
		담당자	사무관	양지영 (044-200-5284)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담당자	서기관	임병준 (044-200-5834)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이다은 (044-200-5327)

□ 녹색해운

- (일시/장소/참석) 12.6. 10:00 - 10:45 / 한국홍보관 / 한국, 미국
 - * 韓(우리부,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美(국무부)
- (행사내용) 대한민국의 탈탄소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및 녹색해운항로 청사진 소개 및 전문가 토론 진행
 - *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등 해운분야중심의 탄소중립 행동계획(제목 : Toward Green shipping by 2050)
- (행사의의) 우리나라 해운 탈탄소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위상 제고 및 협력 계기 마련

□ 블루카본

- IUCN 연계 부대행사 개최
 - (일시/장소/참석) '23.12.4. / IUCN 홍보관 / 한국, IUCN, 호주 등
 - (내용) 비식생갯벌의 탄소흡수기능 규명을 위한 ①IUCN과의 특별 보고서 발간, ②IPCC 국가제안서* 제출 등 향후 협력 사항 논의
 - * 신규 블루카본 국제 인증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IPCC TFI(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기구)에서 국가제안서의 적정성 검토 후 UNFCCC에 신규 탄소흡수원 추천
 - (의의) IPCC 온실가스 작성 지침 내 '비식생 갯벌' 반영을 위한 국제 공론화 및 향후 프로세스 구체화
 - * IUCN 홍보관은 한국홍보관에 비해 환경 관련 해외 인사 참여율이 높으므로, 비식생갯벌의 인지도 상승 및 국제적 관심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개최
 - (일시/장소/참석) '23.12.6. / 한국홍보관 / 한국, 인니, UN 등
 - (내용) 탄소중립을 위한 블루카본 연구와 정책 방향 논의
 - (의의) 블루카본 연구·정책의 방향성 논의 구체화, 국내 블루카본 보호·복원 관련 홍보 및 공론화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녹색해운항로 협력에 대한 공동 선언문

COP28 세계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녹색해운항로에 대한 협력의 다음 단계를 발표합니다.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당하며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OP27에서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진하고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녹색해운목표(Green Shipping Challenge)가 출범되었습니다.

이 목표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 부산항, 미국 북서항만동맹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협력 의사를 밝혔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미국은 머스크-맥케니-물러 무탄소선박센터(MMMCZS)를 통해 진행한 양국 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부산항, 울산항, 마산항, 그리고 미국 북서항만동맹(시애틀항과 타코마항), 에버렛항은 양국 항만간 화물 흐름, 재생연료 가용성, 선박 유형, 녹색항로 구축을 위한 활용 가능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모두의 노력 덕분에 해양 탈탄소화를 위한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 항로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구 결과의 요약본은 이번년도 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COP28 직전에 한국과 미국의 실무그룹은 컨소시엄 인큐베이션 워크숍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잠재 녹색해운항로를 소개하였고, 해당 항로 중 어떤 선택지가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는지,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된 항로에는 그린메탄올 또는 그린암모니아를 사용하여 운항되는 컨테이너 선박과 자동차운반선의 운송경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지속 개발을 위해 1~3개의 최종 항로를 선택할 것이며, 2024년에 해당 항로의 세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뒤이어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 탄소 저감 기술, 에너지 절약 기술의 활용을 위한 파일럿 및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3

유엔해양특사(Peter Thomson) 약력

□ UN사무총장 해양특사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명 : 피터 톰슨 (Peter Thomson) ■ 국적 : 피지 ■ 1948년생 (만 75세)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오클랜드공과대 정치학과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UN 사무총장 해양특사('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특사(UN Secretary-General's Special Envoy for the Ocean)는 UN주관 해양 컨퍼런스(UNOC) 관련 업무를 비롯해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DG14)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 前 제71대 UN총회 의장('16~'17) ■ 前 UN 개발계획 이사회, UN 인구기금 이사회 의장('14~'15) ■ 前 UN 주재 피지대사('10~'17) 	